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2>]日帝, 한라산 원시림 대량 벌목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5.05.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1. 20세기는 한라산 수난시대

“제주도는 수륙(水陸)의 생산물이 적잖고, 생각건대 우리(일본) 식민지중 적당한 하나의 부원(富源)이다”.

“우리과 이웃하고 있는 한반도는 드디어 우리 세력 및 이익의 두 권역 안에 들어왔다. 그들의 보고(寶庫, 제주도를 지칭)를 열고 이로써 제국경제의 팽창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으면 후세 천하의 비웃음을 어찌할 것인가”.

“제주도는 한국 남쪽에 있어서의 보고이니라. 이의 개척의 열쇠는 실로 야마토(일본)민족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헛되이 남해에 잠재우고 있으니 어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늘이 준 일대보고(一大寶庫), 이를 계발(啓發)하면 그 이익은 적잖은 것이다”.

1905년 일본인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가 펴낸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에 일본인 학자와 언론인들이 남긴 서문(序文)의 일부다.

이 책은 제주도의 지리, 교통, 어업, 농업, 상업, 임업, 기후, 풍토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에 의한 제주의 종합적 조사기록이다. 이 책은 일제에 의한 강제합병을 5년 앞둔 해에 나온 것이지만 일본은 이미 제주를 제국경제 팽창의 ‘부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책을 저술한 아오야기는 더 노골적이다. “남자가 태어나면 사방에 뜻이 있다. 대거 몰려와서 이 부원을 개척, 산과 바다에 충만하는 유리를 주워 우리 상품의 공급자가 되고 제2의 새 고향을 건설하여 이로써 국익을 도모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있다. 나비박사 석주명은 그의 저서 ‘제주도수필’에서 아오야기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침략의 선봉자로서 그가 펴낸 제주도안내는 당시의 일본의 팽창상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했다.

20세기 지난 1백년의 제주땅은 수탈과 착취, 훼손의 대상이었다. 이 책의 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제국주의 일본에 있어서 제주는 ‘하늘이 준 보고’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수탈은 1905년 강압적으로 을사협약을 맺게 하고 1945년 패망때까지 토지는 물론 어장과 어획물,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20세기초 한라산의 숲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05년 일본인 아오야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의 남면에는 노목대수(老木大樹)가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두운 삼림을 이루고 있다. 수목은 무진장이라고 할만큼 많다. 본도는 노임이 저럼할뿐만 아니라 강건한 우마가 유목되고 있는 것을 이용, 적당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이를 즉시 여순(旅順, 중국 대련시, 청일전쟁때 일본

군이 공략한 곳) 방면으로 수출하면 전후에 그 이익이 대단할 것이다”.

한라산 원시림은 일제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됐다. 그 증거가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에 일제에 의한 한라산 훼손사가 낱낱이 적혀있다. 향토사학자 김봉옥씨는 “일제하에 한라산 원시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개탄했다.

1908년의 삼림법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에 의한 피해를 단속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일본인들이 산림을 점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제는 삼림법을 폐지하고 1911년에 새로 삼림령을 공포한다. 이 삼림령은 임목불하(林木拂下)에 한국인의 참여를 막았고 단속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한라산의 원시림은 1915년부터 1930년까지 16년동안 대대적으로 잘려져 나갔다. 당시 총독부는 영림서(營林署)를 두어 전국 산악의 삼림을 별목, 무더기로 처분하기 시작한다.

총독부는 한라산을 남북으로 나누어 사업구를 설치했다. 또 지역별로 북구는 제1임반에서 19임반으로 나누고, 남구는 제1임반에서 제22임반으로 각각 구분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그 내부를 소림반(小林班)으로 설정해 막대한 양의 임산물을 처분했다.

김봉옥씨는 “이 때 매각 처분된 수량이 총독부 관보에 기록된 내용만 1921년부터 10년간 42만8천여 그루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 대상물도 구상나무, 주목, 때죽나무, 졸참나무, 비자나무, 흑송, 적송, 종가시나무는 물론 잡목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었다.

광활한 산악지대는 표고 재배지로 임대되면서 표고 원료인 자목 별목을 허가한 지역이 9백76만여평으로 1천만평에 육박했다. 이뿐이 아니다. 주목, 진달래, 단풍나무, 눈향나무 등 희귀수종들이 일본인에 의해 정원수나 분재용으로 공공연히 채취하도록 했다. 허가면적은 1백60여만여평에 달했다.

제주도지(1982)는 일제시대 후반기의 임정(林政)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33년부터 산림보호직원이 배치되고 매년 인원을 증원하여 민간에서의 연료나 가사용 목재의 벌채마저 금하였다. 그러나 관 주도의 벌채는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 광복 후에도 도.남벌 자행

한라산 원시림의 파괴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 손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됐다.

당시만 해도 모든 법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때라 ‘8·15 광복이후 자유와 해방의 뜻을 곡해한 주민들에 의해 도벌과 남벌이 자행되었다.’(제주도지 하권, 1982)

한라산 국유림 벌채 허가는 곧 일확천금으로 인식되던 때였다. 연료를 장작과 숯에 의존했고 재질이 좋은 나무는 관리를 매수해 허가 받은 양의 몇배를 더 벌목함으로써 막대한 돈벌이가 되었다. 1948년 4.3때는 군의 작전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벌채가 진행됐다.

“표고산업이 잘되던 때에는 표고용 자목 벌채도 훼손에 큰 몫을 했다. 산속에 표고생산용 관리사를 지어 놓고, 아예 주변에 있는 주목, 눈향나무, 진달래, 벚나무, 구상나무 등 희귀하고 중요한 나무를 파내어 내다 팔았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제주자연환경파괴를 고발해온 신상범씨는 “한라산을 비롯해 산림지역에서 허가 벌목한 양이 많을 때는 24만톤에 달했으나 연료가 석탄으로 바뀌고 국립공원내 표고재배를 금지하면서 벌채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제주도지(1996)에서 회고했다.

관 주도의 산림훼손도 한라산 원시림 파괴를 가속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2년과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당시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조경수 1만7천여그루를 파내다 어승생저수지 주변과

공항주변, 도청 앞 등 제주시내 가로수로 심었다. 이때 파내다 심은 나무는 2m 이상 주목 4백 그루를 비롯해 진달래, 굴거리, 자배나무, 동백, 팡팡나무, 비자나무 등 모두 희귀한 것들이었다. 이 나무를 파내기 위해 차도를 개설하고 주변 작은 나무를 캐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벌채된 것은 나무만도 10만여 그루가 될 것으로 추산되었고 토양 유실과 다른 초본 등 생태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다.”

탐방객의 집중과 한라산 관리정책의 실패도 훼손을 부추겼다. 무분별한 정상 개방으로 백록담이 황폐화되다시피 했고 탐방객들의 답압과 침식, 붕괴, 기후온난화 등 자연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훼손지는 갈수록 늘어갔다. 20세기의 지난 1백년은 한라산 수난시대였다.

[사진설명] '濟州島 營林署 겸 제주 山林保護區'

'일제식민지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한라산의 서나무를 베어내어 표고 재배를 시작했다. 영림서에서 키워낸 삼나무와 소나무의 묘목으로 식목도 했다. 그들은 한라산의 나무들을 자원으로 보았기에 펍 중요시했는데 이 건물은 그 관리와 행정을 담당했던 곳이다.'(도승격 50주년 기념사진집, 제주 100년 중에서, 1996년)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